

지역 소식통

정읍시 농기센터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 여성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 회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 인성담소를 통해 과제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과제교육은 생활개선회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 농업인의 활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농약안전사용교육(PTA)과 단호박 재배 기술 등 당면 영농 교육으로 영농정보 교류와 실습을 통해 단체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여름을 맞아 야외선 보호를 위한 선크림 만들기와 환경 보호를 위한 천연 주방세제 만들기, 심신안정을 위한 원예 치료 활동 생활문화 기술 습득을 위한 퀵트가방 만들기 등 지역별 회원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진행된다.

시는 교육장에 소독약품을 비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로컬방위대 활동 자처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청정지대'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 제품들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5월부터 로컬방위대 활동을 자처하고 나섰다.

관련해 로컬방위대는 정읍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여 지역 곳곳의 농가를 방문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수확이 끝나면 받은 수확물을 지역 내 소의 이웃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펼쳤다.

로컬방위대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정읍을 사랑하는 청년들을 모집해 매월 1회 이상 농촌 마을을 방문해 로컬소비 캠페인 펼칠 예정이다.

칠보면 상일마을 회장 김준도는 "농촌에 청년들이 찾아오니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다"며 "로컬방위대 활동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지원받아 고맙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천사 히어로즈' 개장 임박

정읍시,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 시설 내·외부 공사 완료 스크린 사격야구장 등 20종 50여 개 놀이시설 갖춰 기대감

정읍시가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 도내 최대 규모의 실내형 복합놀이 시설인 '천사 히어로즈' 공사를 완료하고 개장 초읽기에 들어갔다.

'천사 히어로즈'는 더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즐겁고 자유로운 놀이문화를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들어 상시적인 미세먼지와 황사, 폭염 등으로 실내 활동을 즐기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개장 전부터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는 물론

데이트를 고상하는 연인들까지 다양한 계층에게 최고의 즐길 거리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천사 히어로즈는 사계절 내내 비와 미세먼지는 물론, 자외선이 가득한 햇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름철 무더위나 태풍 겨울철 혹한과 눈보라도 마찬가지다.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천사 히어로즈는 총 2280㎡의 건축 연면적의 규모로 총사업비 49억2천만원이 투입됐다.

실내형 모험 놀이 시설과 VR체험, 스크린 야구장 트랩볼 등 20종 50여 개의 놀이 시설이 갖춰져 있다.

짜릿한 스릴과 즐거움이 가득한 어트랙션들을 직접 몸으로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등 정읍에 없었던 또 다른 모습으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시는 이 시설을 기반으로 내장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가족 단위 체험과 힐링 토달관광 기반을 구축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곳을 쫓아온 체험 관광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하면 사계절 토달관광 핵심 거점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을 비롯한 청소년들과 연인들이 정읍을 찾아 마음껏 놀고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놀이 시설 개관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코로나19 감염 추이에 따라 개관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북분자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가운데 고창군이 수매장려금 지원 등 북분자 활성화 사업에 헌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 북분자 본격 수확... 고창군, 수매장려금 지원

고창 북분자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가운데 고창군이 수매장려금 지원 등 북분자 활성화 사업에 헌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북분자 수매장려금 지원으로 지역농협 수매에 참여한 북분자 생산농가에게 1kg당 1000원씩을 직접 지원한다.

또 지역농협에서 관내 가공업체에 공급한 물량도 kg당 1000원을 고창군에서 지역농협에 지원해 가공업체의 원료 확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앞서 수매기관 협의에 따라 올해 북분자 수매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kg당 1만1000원으로 자율적으로 결정됐다. 고창군은 북분자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소재 농가지원, 북분자 고사원인 극복을 위한 실증시험사업, 북

분자 재배기술 교육, 무병묘 생산 및 보급 등을 통해 고품질·안전 북분자 생산기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난 17일 오후 무장면 북분자 수매현장을 찾아 수매기관을 격려하고 수매참여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유기상 군수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북분자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과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분자는 '요강이 소변 줄기에 뒤집어진다'고 하여 붉은 놀라운 이름이다. 전통적으로 북분자는 기력과 정력을 보강하는 상징 같은 열매로 여겨져 왔다. 최근에는 '복된 분들이 자시는(드시는) 음료'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섬 속의 힐링공간 위도 치유의 숲 착공

부안군 위도 치도리·대리 일원... 41.9ha 규모, 내년 개장

부안군은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유일의 섬 속의 힐링공간인 위도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최근 착공했다고 밝혔다.

다. 위도 치유의 숲은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 산 192-1과 대리 산 2-1 일원에 약 41.9ha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국내 유일의 섬 속의 힐링공간인 위도 치유의 숲 조감도.

부안군, 해수욕장 방역·안전관리요원 98명 모집

부안군은 여름철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과 안전사고 예방, 상황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 해수욕장 방역·안전관리요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요원은 방역요원 10명, 안전관리요원 88명 등 총 98명이며 이는 코로나19 방역과 야간배치 등 안전관리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른 것으로 작년 대비 24명이 증원돼 그동안 인력부족

으로 어려움을 겪던 해수욕장 운영관리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응시지역은 안전관리요원의 경우 만 18세 이상으로 인명구조 자격증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 해수욕장 안전관리 유경험자, 수영 가능하여야 한다.

방역요원의 경우 자격제한은 없으나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의료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우선 채용할

2021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된다.

위도 치유의 숲에는 치유센터 1동, 숲 속의 집 4동, 치유숲길 4.7km, 치유정원 등 숲을 이용한 다양한 힐링공간이 조성된다. 치유센터에서는 건강측정, 상담 등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치유 프로그램을 추천받은 후 온열치료, 음파치료, 반신욕 및 족욕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이외에 조성되는 치유의 숲은 위도면 자생 소나무와 바다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명상장 숲길, 치유정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전국에 20여 개소의 치유의 숲이 운영 중이고 신규 31개소가 조성 예정이며 위도 치유의 숲은 제주도를 제외한 치유의 숲 중 국내에서 유일한 섬 속의 치유의 숲이다.

군 관계자는 "위도 치유의 숲은 산림휴양·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지역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부안의 관광자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부안군청 해양수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hass010@kor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내달 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근무기간은 부안군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맞춰 오는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40일간이며 보수는 1일 13만 800원(안전관리자는 17만 5000원)으로 야간근무수당과 간식비도 지원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재난기본소득 찾아가세요"

고창군, 다자녀가구·노인부모 부양세대 20만원씩 추가 지급

고창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군민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해 군비 64억을 들여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3월29일 기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결혼이민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다.

특히 '부모님 섬기는 효자군정'과 '지식농사 잘 짓는 고창'을 위한 특화 시책으로 다자녀가구와 노인부모 부양세대의 경우에는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군민들도 8월1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가 세대내위로 신청을 하되, 세대주가 신청하지 못할 경우, 세대원이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집중적으로, 마을을 방문해 고창군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를 실시했다.

군민 편의를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고창 재난기본소득지원금과 함께 찾아가서 지급을 완료했다. 고창군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군민들의 신청금액 61억여원 중 54억여원(88%)을 지급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20만원이 노인 부모를 모시고 다자녀를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들이 가급적 빠른 지원금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울려퍼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